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3주년 추모식
서거 78주기

추 모 사

- 일시 : 2023년 5월 8일(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

재단법인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존경하는 고하 송진우 선생님께서 오늘 133주년 탄신일을 맞이하여 선생님을 사모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고 계십니다.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의 유택(幽宅) 앞에 함께 모여 선생님의 항일독립운동과 민족자강 그리고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의 일념으로 대한민국 탄생의 초석을 놓으신 위대한 발자취를 회상하면서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 사태가 해제되어 정상적으로 추모의 예식을 갖게 되었으니 다행인가 합니다.

고하 선생님,

선생님께서 평생을 바쳐 펼치신 수많은 애국운동(愛國運動)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께서 봉독해주신 선생님의 약전(略傳) 보고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크게 감명을 받았으며 이를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험난하고 절망적이었던 일제 암흑기에도 민족불멸(民族不滅), 일제필망(日帝必亡), 그리고 독립필지(獨立必至)의 신념으로 항상 해방의 밝은 미래를 직시(直視)하시고 조국광복(祖國光復)을 위하여 몸 바치신 선생님의 애국(愛國) 애족(愛族) 애민(愛民) 정신과 업적은 우리역사의 찬란한 한 페이지로서 모두에게 크나큰 교훈(教訓)과 감명(感銘)을 주셨습니다.

일제식민지시대에 2천만 조선민중은 누구든지 국권회복의 기회가 오면 한 몸 바칠 각오가 되어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만주별판에서 무장독립투쟁을 하신 선열들, 중국 상해 등지에서 임시정부를 세워 풍찬노숙을 마다않고 희생하신 애국지사들, 러시아나 연해주 등지에서 활약하신 혁명가들, 미주와 유럽에서 일제의 불법 강점을 세계만방에 알리는데 앞장 선 선각자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해외 각지에서 치열하게 진행된 여러 갈래의 해외독립운동은 국내에서 이에 적극 호응하여 독립자금을 몰래 지원하고, 귀한 인쇄용 한글 활자를 보내주며, 크고 작은 배일(排日)활동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해내외에 널리 알린 국내독립운동 지도자들의 강력한 뒷받침에 의하여 더욱 든든하고 효과적인 투쟁이 되었습니다. 고하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국내독립운동세력의 호응과 지원 및 홍보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외독립운동이 정통성을 인정받고 발군의 효과를 성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혹심한 탄압과 습도 쉬기 어려운 감시 속에서 일제가 강요한 굴종과 착취에 맞선 국내독립운동의 중심점에는 고하선생님이 우뚝 서 계십니다. 선생님께서는 1918년 가을부터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론 등 국제정세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3·1운동이라는 회천대업(回天大業)을 기획하고 주도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중앙학교 숙직실을 3·1독립운동의 책원지(策源地)로 삼아 현상윤(玄相允), 김성수(金性洙) 및 최남선(崔南善), 그리고 현상윤을 통하여 그의 은사인 최린(崔麟)과 동향선배인 이승훈(李昇薰)을 여러 차례 접촉하여 독립운동을 획책하시었고, 학생의 조직과 동원을 맡았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동경에 있던 평생 동지 근촌 백관수(芹村白寬洙)와 연락하면서 2·8독립선언서 인쇄에 필요한 한글 활자와 자금을 보내고 거사지침을 긴밀히 상의하였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역사상 처음으로 천도교와 기독교 그리고 불교와의 합동을 성취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는 33인만이 민족대표로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만세운동 한 번에 독립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2진, 제3진의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위하여 그 배후추진주체인 고하 선생님 등은 서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하선생님이 후일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과 함께 1년 7개월의 옥고를 치렀음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3·1독립운동을 획책하고 추진한 국내지도자들을 정부가 33인과 48인으로 구분하여 차등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여러 갈래로 국내외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을 골고루 균형 있게 평가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훈격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보훈정책의 방향과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컨대 정부는 고하선생님을 중심으로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3·1운동의 첫 횃불을 올린 사실을 배제했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입에 맞는 극소수의 지도자나 한 두 그룹을 내세워 마치 그들이 광복을 쟁취한 듯 서술한 교과서의 총체적 왜곡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져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승격된 국가보훈부는 이제 그 사명이 막중합니다. 우선 올바른 보훈정책으로 국격(國格)을 높이고, 1919년 이후의 한국 최근세사, 특히 항일독립운동사, 해방전후사 및 한국동란사가 철저히 왜곡되고 생략되고 조작되고 과장된 역사적 기록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리하여 새 정부는 그동안의 사상적 혼란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역사관을 확립하여 이념에 따른 역

사전쟁을 끝내어 국민을 통합해야 할 중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혼란과 격동의 정국에서는 분출하는 복수심과 망국에 대한 추종의 심리 속에 모두가 애국자처럼 외치는 동안 이미 이성(理性)은 문제해결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성공하자 폐쇄적 농경사회인 조선 천지에 급격한 사상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층은 물론 일본 유학을 한 선진 지식인들조차 사회주의 물결에 붉게 오염되어가고 있을 때 일제의 폭압 속에서도 일찍부터 꿋꿋하게 자유민주주의의 한 길로 일로매진하신 유일한 국내지도자가 고하 선생님이십니다. 일찍이 1915년 학지광(學之光) 잡지에 실린 논문에서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신 이래 1925년 하와이에서 만난 이승만의 망명제의를 거부하고 귀국하여 동아일보에 기고한 명 논설(名論說)에서도 국제사회의 흐름에서 한국의 선택은 자유민주주의임을 강조하는 견해를 밝혔으며, 1932년 삼천리(三千里) 잡지에 실린 글에서는 복지와 민생을 외면하지 않는 자유권을 주장하셨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꾸준히 추진한 민족자강운동은 독립과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길임을 확신하고 교육, 언론, 역사, 문화, 체육, 산업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헌신하셨습니다. 고하선생님의 선견과 예지로서 공산주의자들이 계급을 앞세워 민족을 분열시키는 책동을 막아냈습니다. 조선총독부와 타협하지 않았고 해방 후에는 공산당의 꼭두각시에 불과하게 된 인공(人共)에 대하여 중경임시정부지지, 민족역량 총집결을 위한 국민대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범민족세력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공산당의 발호를 막기 위하여 한국민주당을 창당했으며, 그 수석총무로서 1945년 12월 22일 중앙방송국에서 행한 정견발표에서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셨습니다. 민족의식을 일깨운 3·1독립운동 전후부터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신봉하여 특히 좌우가 대립하던 해방공간에서 필사적으로 공산당을 막아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으로 삼은 고하선생님을 더욱 깊이 추모합니다. 한국 현대정치사는 고하가 염원하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확립을 위한 투쟁으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평생 친구요 역사학자이신 위당 정인보(爲堂 鄭寅普) 선생님은 고하 선생님을 충무공(忠武公)과 비견하셨습니다. “그 지조와 도량, 판단력, 식견, 통솔력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충무공 이래의 처음 인물이며 이후 언제나 이런 인재를 우리나라가 가질 것인가” 라고 한탄하시면서 선생님의 독야청청(獨也靑靑)의 일생을 기리셨습니다. 위당 선생님은 비록 썩었고 우유부단하나마 이충무

공 때는 정부가 있었지만 고하는 일제의 폭압과 감시 속에서 홀로 동아일보를 짚어지고 독립을 위한 투쟁을 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평생의 동지 가인 김병로(街人 金炳魯) 초대 대법원장께서도 생전에 고하선생님을 조선시대를 통털어 이율곡(李栗谷)과 함께 가장 존경할 인물이라고 항상 말씀하시었고, 가인은 임종의 순간에도 고하선생님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부르셨다고 합니다.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는 매년 국경일과 명절, 그리고 고하선생님의 탄신일 및 기일에 서울어린이대공원의 동상, 그리고 고하, 가인 및 위당 등 세분을 모시는 창동의 3사자 동상 및 이곳 독립유공자묘역의 유택에 참배 및 헌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 고택과 고하선생기념관의 관리 등은 송진한 교수가 관장으로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기념사업회에서는 작년에 고하 송진우 일대기인 “독립을 향한 집념”을 증보 발간했습니다. 아무쪼록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및 국민들에게 민족의 얼과 긍지를 심어주고, 왜곡된 항일독립운동사와 해방전후사를 바로잡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고하 선생님께서 쓰신 선각적인 글 모음과 그 시대에 다른 분들이 고하선생님을 평가하신 글과 자료들을 쉽게 풀어서 “거인의 숨결”이라는 제목으로 증보판을 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의 약전을 봉독해주신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님, 추모 메시지를 보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를 대독하러 이 자리에 오신 최상목 경제수석님께 감사드립니다. 추모사를 해주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님, 그리고 추모강연을 해주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님, 고하 선생님을 추모하는 노래를 독창으로 불러주실 소프라노 서혜연 서울대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장 행사 진행에 협조해주신 국립서울현충원 당국자에게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추모식에 참석해 주신 귀빈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저희들은 선생님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받들어 이 나라를 부강한 선진 복지국가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을 계속 이끌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추모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5월 8일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창식